

尹 대통령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독립운동 정신 계승’

한·일관계 개선의지 밝혀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않을 듯 정순신 낙마 여파...수석비서관회의서 학폭 근절 대책 보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3·1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3·1 독립운동이 항일의 의미를 넘어 이 땅에 민주공화제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의 가치를 되새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에서 이미

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과 부합하며,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 간의 서를 외교 복원과 한미일 안보 협

력 강화 등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재차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신속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양국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때 그 결과물 속이나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 협력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

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 실패 비판이 이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4%

리얼미터 조사...민주당 43.9%·국힘 42.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0.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 지난주 조사에서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57.0%였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인천·경기(2.6%p ↑), 연령대로 50대(9.5%p ↑), 70대 이상(4.1%p ↑)에서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0.4%p ↑),

무당층(6.0%p ↑), 국민의힘 지지층(2.7%p ↑)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0%p ↑)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7%p ↑), 대전·세종·충청(3.4%p ↑), 20대(2.9%p ↑), 60대(2.4%p ↑), 40대(4.9%p ↑), 30대(4.0%p ↑)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4.0%p 오른 43.9%, 국민의힘은 2.8%p 내린 42.2%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0.6%p 낮아진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순신 파장’에...공직후보자 질문서 보강

대통령실, 질문 세분화·자녀 전력 등 여러건 추가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엔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면 60페이지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다.

이 질문서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총망라돼 있지만, 대개 후보자 당사자에게 집중된 내용으로 가족 관련 사항은 비교적 많지 않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 질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을 여러 건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

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한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질문서 보강만으로 정 변호사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증 범위 확대에 비교적 신중한 기류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등 마녀사냥식으로 대응하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동포사회 숙원’ 재외동포청 탄생 임박

설립법 국회 통과...‘재외동포재단 사업 승계’ 지자체 유치 경쟁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

고 모국 정부에 줄기찬 건의를 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 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놓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엔 결실을 거두었다.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급 정부 기관의 인력이 최소 200여 명인 상황에서 “작은 정부” 지향을 위해 그 이상으로 조직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h1>명품매장가맹점모집</h1> <p>(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p>		
<p>모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p>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p>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h2>2023 고소득추천 목록</h2>		
<p>두릅</p> <p>민두릅 참두릅</p> <p>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p>	<p>포도</p> <p>루비로망</p> <p>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p>	<p>감</p> <p>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봉</p> <p>신물중,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p>
<p>임나무</p> <p>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p> <p>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p>	<p>호두</p> <p>신품종 호두</p> <p>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딱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스러집니다.</p>	<p>사과, 신물중 호두, 신물중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p> <p>※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p> <p>휴경기 노는맘 상담해드립니다.</p>

<p>꼭! 받아야 할 돈 회수</p> <p>※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p> <p>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p> <p>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p> <p>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p> <p><small>(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p>전문추심인 직접관리</p> <p>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p> <p>24시간 상담가능</p> <p>중앙신용정보</p> <p>010-2860-4700</p> <p>직통전화 062)521-4109</p>
--

010-2288-0849 / 062-511-0849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원주시 하명동 하명로25 · 농림 312-3121-7676-91 (매일주·정준희)